

훈데르트바씨의 작품세계와 특성에 관한 연구

- 회화작품의 건축구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Hundertwasser

- Focus on his paintings and Architecture Projects -

Author 정유진 Chung, Yu Jin / 정회원, 세명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강사, 실내건축석사
김흥섭 Kim, Heung-Seob / 정회원, 세명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부교수, 건축공학박사

Abstract Art has always been a witness to its time. The art of our century has lived through two world war. In that time Friedensreich Hundertwasser was born to a half Jewish family in Vienna in 1928. He lived and died as a painter, architect, designer, ecologist, writer, innovator... etc. He was impressed form Gustav Klimt, who pioneered the Viennese Secession which was the Austrian expression of the Art-Nouveau mouvement and inspired by the works of Egon Schiele from an early date. His style as an architect was heavily influenced by Antonio Gaudi and some of the Jugendstil architects. Although his architectural work is comparable to Gaudi in its biomorphic forms and use of tile, but is currently renowned for his unique styling. His character as follows; First, Bold color - His use of color is bold, and he has a strong sense of which color work well together. Second, Curved line & Spiral - It's the primary shapes in his works against the tyranny of ugliness and the iron rule of its straight line. Spiral reveal as a transautomatism. Third, Harmony with nature - His work is the creator of beauty, of nature of harmony, peace of joy, against the contradictions of our post-industrial society. He represented these various characteristics in his works. Hundertwasser first achieved notoriety for his boldly-colored painting, he is more widely renowned today for his revolutionary architectural designs.

Keywords 훈데르트바씨, 회화, 대담한 색채, 곡선, 나선, 자연과의 조화
Hunertwasser, Painting, Bold color, Curved line, Spiral, Harmony with natur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예술은 항상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자인 동시에 목격자라 할 수 있다.¹⁾ 양차대전과 물질문명시대를 지낸 우리의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서,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씨(Friedensreich Hundertwasser)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예술 세계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오스트리아 작가로서 조명되어지고 있다.

화가로서 출발한 그는 대담하고 강렬한 색채로 한때 악평을 받기도 하며 가우디(Antoni Gaudi)와 비교되기도 했지만 그의 혁신적이고 주목할 만한 건축 작품과 그만의 독특한 철학으로 현재 폭넓게 재조명되어지고 있다.

그의 감각적이고도 풍부한 색채감과 자연친화적인 그

의 건축은 오늘날 인간과 건축의 공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생태운동가로서 그의 작품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일련의 건축프로젝트 과정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점이 오늘날 그를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시점에서 화가이자 건축가, 디자이너, 환경운동가이자 평화주의자였던 종합 예술인 훈데르트바씨의 생애와 성장 환경 등 시대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그의 작품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회화에서 시작해 건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그림만으로 표현되었던 그의 철학이 어떻게 행동으로, 건축 작품으로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그의 조형원리와 작품 세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Pierre Restanny, The power of art, Hudertwasser - The painter -king with the five skins, TASCHEN, 2003, p.7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훈데르트바씨의 작품 전반에 나타난 사상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그의 생애와 성장환경 등을 통해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에게 영향을 끼친 작가들과 사상 등을 통해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그의 작품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시대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 훈데르트바씨만의 독특한 작품 특성 생성되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본 후, 화가로서 시작하여 건축가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 영역 중심을 위주로 그려진 회화 작품과 건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그의 철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문화적 배경

2.1. 생애 및 성장환경



<그림 1> 훈데르트바씨, 1928-2000 (Personal Identity Image)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생인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씨는 (Friedensreich Hundertwasser)²⁾ 1928년 프리드리히 스토바씨 (Friedrich Stowasser)란 이름의 반유대인(Half Jewish)으로 태어났다. 그가 스무 살이 되기 전 외가 친척들은 모두 홀로코스트에 의해 희생당하고 가족 중 그와 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생존하게 된다. 그의 생애와 성장환경을 논할 때 양차대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그는 1차 대전(1914-1918)의 후유증의 남아있는 시대에 태어났으며 2차 대전(1939-1945) 속에서 유년기를 보내는 등 전쟁의 한복판에서 성장하게 된다.

1948년 나치에 의해 중단된 비엔나 아카데미(Vienna Academy of Fine Arts)를 들어가게 되지만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며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그에게는 지루한 수업으로 기억된다.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예술과 관련된 정규 교육으로는 5세 때의 몬테소리 교육과 이 과정이 전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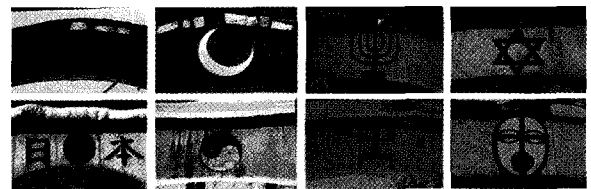
1946년 한 농가에서 일을 하게 된 그는 푸르른 들판과 대지 등 생생한 자연을 느끼며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당시 전쟁전후 세대에 대부분 아이들을 시골로 보내게 되는데 훈데르트바씨에게는 그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된다.

“농장에서 일할 때 풀이 얼마나 푸르고 땅이 얼마나 진한 갈색을 띄는지 보았다. 그때 나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직 예술만이 자연을 표현하기 적합하다고 여겼으며, 이것은 훗날 그의 주요 철학이 된다.³⁾

그의 성장 배경중 주요 요인인 전쟁은 이후 자연에 대한 조화, 더 나아가 인간과 풍요로운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고 환경주의자가 된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스페인, 뉴질랜드, 아프리카, 인도, 미국, 일본 등 다양한 세계로의 여행은 또한 그에게 범세계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느낀 수많은 그의 경험은 범세계적 공존을 위한 삶의 추구로까지 확장된다. 성 바바라 성당에 세워진 12개의 아치입구에 표현된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대교, 유교 등 세계 각국의 종교적 상징들 <그림 2>은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을 상징하며 각 문화에 대한 존경과 화합을 표상한다. 이는 홀로코스트를 겪어낸 그의 유년 시절과 문화의 충돌, 종교의 충돌이 만들어 낸 전쟁에 대항하는 사회에 대한 그의 예술운동이다.



<그림 2> 12 성바바라 성당의 아치입구의 세계 대표종교 상징 (Archway of the St. Barbara Church)

어쩌면 이러한 그의 생의 가치관은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으로 황폐해진 삶의 전후과정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자란 그의 삶에서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2. 아르누보(Art Nouveau)

양차대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훈데르트바씨에게 영향을 끼친 문화적인 예술사조와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성적인 작품들로 어떤 예술사조라고 특히 꼽을 수 없는 그이지만, 개인적으로 아르누보(Art Nouveau)와 비엔나 분리파인 세세션(Secession)을 영향을 받았다고 그 자신도 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서 벗어나 그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일궈나간다.

아르누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유럽 및 미국에서 유행한 장식 양식으로 대개 전통으로부터의 이탈, 새 양식의 창조를 지향하여 자연주의·자발성·단순 및 기술적 완전을 이상으로 했다. 종래의 건축·공예가 그 전형을 그리스, 로마 또는 고딕에서 구한 데 대해서, 이들은 모든 역사적인 양식을 부정하고 자연형태에서 모

2) 파리로 건너간 훈데르트바씨는 ‘평화롭고(Friedens) 풍요로운(reich) 곳에 흐르는 백 개(Hundert)의 물(Wasser)’이란 뜻으로의 개명을 통하여 평화와 자연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환경운동자, 예술운동가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

3) Harry Rand, Hundertwasser, TASCHEN, 2003, p.11

티프를 빌려 새로운 표현을 얻고자 했다. 특히, 덩굴풀이나 담쟁이 등 식물의 형태를 연상하게 하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선과, 파상 및 곡선과 무늬 형태 등 특이한 장식성을 자랑했고, 유기적이고 움직임이 있는 모티프를 즐겨 좌우상칭이나 직선적 구성을 고의로 피했다.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을 소홀히 한 형식적이고 탐미적인 장식으로 빠질 위험도 커 아르누보가 비교적 단명한 이유가 되었다.⁴⁾

특히 유기적인 곡선 형태와 타일 사용 등으로 스페인의 가우디(Antoni Gaudí)와 비교되고 비판받았지만 자연적인 삶을 실현하는 그의 건축은 재조명 되고 있다.

이는, 훈데르트바씨의 작품세계가 단순히 유기적이고 심미적인 장식성을 추구하는 아르누보의 영향에서 벗어나 환경주의자로서의 그의 철학이 환경을 중시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사회상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 미국 워싱턴 D.C.의 시장은 매년 11월 18일을 ‘훈데르트바씨의 날’로 지정하였다. 또한 1982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훈데르트바씨 주간’을 선포하여 오늘날 환경보호에 대해 앞장서고 있다.



<그림 3> 안토니오 가우디, 라페드레라 공동주택, 1906-1910 (Antonio Gaudí, La Pedrera)



<그림 4> 안토니오 가우디, 까사 바뜨요 주택, 1904-1906 (Antonio Gaudí, Casa Batlló)

2.3. 빈 분리파(Wien Sec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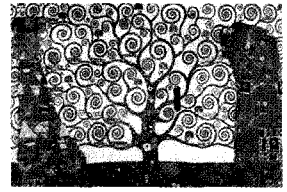
그가 자란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또한 예술사적으로 보면 빈 분리파(Secession)의 중심이었다.

그의 문화적 배경인 고향 비엔나는 1897년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를 주축으로 낡고 판에 박힌 사상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미술과 삶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인간의 내면적인 의미를 미술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빈분리파가 결성되었다.

분리파는 ‘분리된 서민(secessio pleb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이는 아카데미즘이나 관 주도의 전시회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의 전통에서 분리되어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목표로 했으며 그 목적은 미술과 삶의 상호 교류를 추구하고 인간의 내면을 미술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림 5> 요제프 올브리히 제체시온 전시관, 1867-1908 (Joseph Olbrich, Secession)



<그림 6> 구스타프 클림트, 생명의나무, 1909 (Gustav Klimt, Tree of Life)

빈 분리파에는 특정한 예술 이념이나 양식은 없었지만 빈 분리파 전시관 입구에 새겨진 “각 세기마다 고유한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to every age its art and to art its freedom”이라는 문구로 이들은 무엇보다도 아카데미의 오랜 역사와 전통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따라서 예술 경향과 국적을 초월하였으며 전위미술에도 상당히 우호적이었다.⁵⁾

이러한 전위미술은 후에 훈데르트바씨에게 합리주의 건축에 반대하며 건축물이 인간과 동거를 주장하는 ‘곰팡이 선언’(1958), ‘창문에 대한 권리’ 등 다양하고도 파격적인 매니페스토를 통한 예술운동, 환경운동을 하게 되는 그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클림트의 황금시대의 작품들은 훈데르트바씨의 회화 작품 및 건축물에서 황금빛 양파모양 돔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황금을 그만의 언어로 재해석한다. 그에게 있어서 건축물에 높이 얹혀진 황금알은 자연을 순환시키는 매개체인 것이다. 1975년 발표한 자연발효식 화장실 사용을 주장하는 그의 시를 보면 똥은 황금으로, 똥이 흙으로 바뀌고 지붕위에 올려져 초원으로, 숲의 정원으로 변하여 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천연자원인 황금알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양차대전에서의 피폐해진 삶의 터전에 반해 안식을 주는 자연의 풍부함과, 아르누보의 유기적인 선형 요소, 빈분리파의 풍요로운 황금물결에서 감동을 받은 훈데르트바씨는 이러한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만의 독특한 언어로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게 된다.

3. 작품 개념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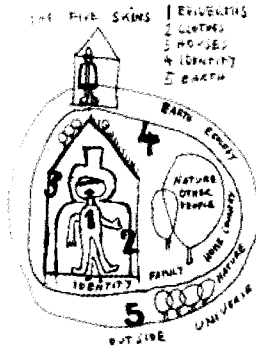
3.1. 강렬한 색채(Bold Color)

훈데르트바씨는 우리는 제1의 피부 몸, 제2의 피부 옷, 제3의 피부 주거공간, 제4의 피부 사회환경, 제5의 피부 지구 등 5개의 피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다섯 가지의 피부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그림 7> 따라서 그에게 우리가 사는 집, 건축물인 제3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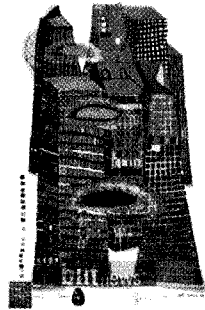
4) <http://100.naver.com/100.nhn?docid=104402> 미술사일반>아르누보

5) <http://100.naver.com/100.nhn?docid=831131> 미술사일반>빈 분리파

피부는 단순히 벽돌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닌 것이며 우리의 또 다른 피부이기에 늘 가꾸고 꾸준히 가꾸어야 하는 내 몸의 일부인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각지고 획일적이며 특색 없는 건물은 아파하며 피 흘리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그림 8>



<그림 7> 5개의 피부 (5 Skins)



<그림 8> 피흘리는 집, 1952(Bleeding Houses)

고통 받고 있는 제3의 피부를 위해 그는 건물을 치료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훈데르트바씨는 건축가라기 보단 '건축치료사'(architecture healer), '건축의사'(architecture doctor)란 별명이 붙게 된다.

그의 건축물 대부분이 신축이 아닌 리노베이션으로 하나의 건축프로젝트로 행해지게 된다. 그는 설계도면이 아니라 그림 그리기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아파하는 건물들은 그와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치료하게 된다. 이러한 딱딱한 직선들로 이뤄진 건물의 치료를 통해 숨 쉬는 건물로 탈바꿈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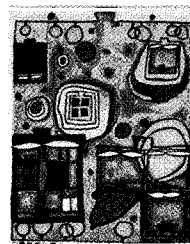
<표 1> 건물 리모델링 계획안(Remodelling Proposal Drawing)

Project	Before	Proposal	After
로젠탈공장 Rosenthal Porcelain Factory, Selb			
스피텔라우 난방발전소 Spittelau District Heating Plant			
쿤스트하우스빈 미술관 KunstHaus-Wien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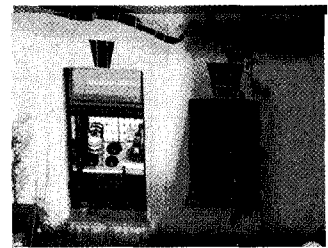
이렇게 꾸준히 가꾸어야 할 우리의 피부는 다양한 색채를 통해 표현되는데, 이러한 각양각색의 색채들은 건물의 세포가 되고 숨구멍이 되어 제3의 피부를 숨 쉬게 한다. 이러한 세포들은 성장하여 강렬한 색채를 통해서 어디서나 눈에 띄게 된다.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적인

색채, 흰색과 검정의 반복되는 대비, 반짝거리는 황금색의 건물은 혐오시설조차 환상적인 마법의 성으로 탈바꿈시키게 된다. 이 여섯 가지 색은 훈데르트바씨 건축의 주된 색상으로 그는 오직 이 여섯 가지만의 색상의 적절한 조합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게 된다. 기존의 컬러이론이나 일반적인 조합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극히 싫어했던 그는 강렬한 색상들을 담대하고 과감하게 사용하였다. 이는 화가로서 색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기반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 여섯 색상을 선택하게 되고, 이 색상들에 대한 그만의 조합을 만들어 낸 것이다. 평소 그는 기존 기성품의 안료만으로는 자연의, 자신만의 색상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직접 천연안료로 색을 만들고 또한 이러한 색상의 부패과정까지 철저히 실험을 하기까지 색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훈데르트바씨에게 있어서 창문은 제3의 피부를 숨쉬게 하는 숨구멍이다. 따라서 그는 창문의 권리(Window Right) 주장하게 된다. 창문권이란, 입주인은 누구나 자기가 팔을 뻗을 수 있는 만큼의 범위에서 창문을 가꿀 권리이다. 그에게서 창문은 눈과 동일하며 눈과 창문은 단일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안과 밖을 연결해 주는 다리이다. 따라서 그는 일반적이고 평이한 창문들은 슬프며 창문들은 춤을 출 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 이러한 창문들은 해당 파사드의 색상과는 대비되는, 세라믹타일로 꾸며지게 된다.<그림 10>



<그림 9> 창문권 1986(window Right)



<그림 10> 훈데르트바씨하우스의 창문(Hundertwasser Haus's window)

한 폭의 그림에서 출발한 그의 작품은 건축프로젝트를 통해 실현되게 되며 이러한 강렬한 옷을 입은 동화 같은 건물은 이제는 도시전체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어 꾸준한 관광객의 증대로 제4의 피부 사회 환경을 풍부하게 하고 이는 지역사회에 환원되어 계속 순환하게 된다.

반짝이는 황금빛 돛과 원색의 감각적이고도 풍부한 색채감은 우리를 둘러싼 제3의 피부가 되며 딱딱하고 획일적인 건물을 치료하여 유연하게 숨 쉬게 한다.

3.2. 곡선(Curved Line)과 나선(Spiral)

<그림 1>은 'The straight line is Godless'라는 직선에 대한 견해와 함께 훈데르트바씨만의 철학을 표현해주

6) Hunderwasser, www.hundertwasserhaus.at, Window Rights

는 그의 대표 이미지(Personal identity image)이다. 그는 인위적이고 직선에 반하여, 오직 곡선만이 자연의 선이고 특히 나선은 그의 회화작품의 주를 이룬다.

반복적으로 그려진 ‘나선’에서 생명력을 느낀 훈데르트 바씨는 이를 생성-소멸, 순환하는 자연의 상징으로 삼았다. 나선과 곡선에 대한 매혹은 직선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게 된다. 그는 불규칙한 곡선의 사용을 통해서 일직선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콘스트하우스빈(Kunsthause Wien)의 불규칙한 체크판 패턴은 그리드시스템의 해체를 의미한다.”⁷⁾

그의 회화작품을 보면 나선과 곡선이 주를 이루는데 거대한 나선으로 이루어진 대자연, 즉 땅에서 우리가 사는 공간과 환경은 거대한 나선의 한 부분, 일부분인 곡선인 것이다.<그림 11> 따라서 훈데르트바씨는 우리가 사는 공간을 곡선으로 만듦으로서 커다란 나선이 연결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지와 연결되는 가로와 곡선과는 달리, 그의 건물 파사드에서 나타나는 세로의 곡선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다. 땅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성 바바라 성당에서와 같이 지붕의 패턴으로 표현되며, 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그의 건축물 외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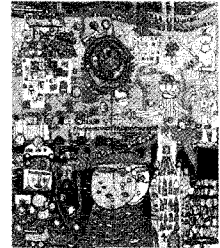
그의 이러한 유기적인 자연의 곡선은 그의 상상력에 기인하는 나선으로 구현되는데 그는 이러한 방법을 트랜스오토마티즘(Transautomatism)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음의 움직임을 그대로 기술하는 자동심리기계 방법의 오토마티즘은 참다운 사고의 기능을 언어나 문자의 형태로 표현하려는 시도로 무한한 힘, 잠재의식에 대한 기본 바탕이다. 훈데르트바씨는 순수한 창작 욕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의식적인 생각을 자제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이러한 오토마티즘을 넘어서, 본인의 경험과 상상력을 더하는 그만의 나선세계를 표현하게 된다. 그의 회화작품은 식물의 유기적 성장처럼 자라게 되는데, 그는 그림을 그릴 때 중간에 그림을 멈추고 일정기간 동안 나두어 그림에게도 자랄 시간을 주게 한다. 이때부터 그는 그의 작품에 변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그의 이러한 시간적 차이를 통해 그는 작가의 의도보다는 상황과 시간이 주는 그림의 의도대로 갈무리하는 방법을 택한다. 1994년 훈데르트바씨는 30일동안 매일 타이프 용지에 펜화를 그려 그것을 친구에게 팩스로 전송한다. 그리고 그 30일간의 팩스를 모아 작품을 만든다. 그의 회고록에서 좌측 상단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했지만 작품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그날 작가의 사건과 기분에 따라 주제가 정해지고 한 달이 지난 후 작품은 완성되게 된다.<그림 12> 이렇듯 그의 작품은 자연의 산물처럼 시간을 두고 유기적으로 자라게 된다.

그의 건축물은 곡선과 나선으로 층별의 구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어지게 되며, 특히 자연스럽게 이어진 옥상의 정원은 하나의 초원으로 이어져 나와 이웃의 경계 없이 하나로 연결되게 된다.



<그림 11> 대지의 여신을 연상시키는 회화, 1971-1972 (Ireland over the Balkans)



<그림 12> 30일간 팩스로 완성된 그림, 1994 (30days Fax picture)

이러한 곡선에 대한 특성은 건축물의 외부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평평하지 않은 바닥, 울퉁불퉁한 복도를 포함해 아이들의 놀이방에서는 바닥 자체의 굴곡만으로도 미끄럼틀이 된다.<그림 13>



<그림 13> 울퉁불퉁한 실내의 바닥과 벽

“나는 교향곡의 멜로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울퉁불퉁하고 살아있는 바닥을 통해 인간에게 잃어버렸던 자연에 대한 균형감을 되찾기를 바랍니다.”⁸⁾

3.3. 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Nature)

훈데르트바씨에겐 건물은 산업사회에 대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1990년 훈데르트바씨하우스(Hunderwasserhaus)와 함께 그의 대표작인 미술관 콘스트하우스빈(Kunsthause Wien)의 리모델링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그는, 예술은 인간과 자연과 함께 만나야 하며,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고, 자연의 창의성과 인간의 창의성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존재라 여겼다. 예술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유행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예술작품은 건축가 개인만의 작품이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입주민과 함께 만들어지고 가꿔져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벽의 스크래치 작업, 작업자

7) Hudertwasser, 1991, www.kunsthausewien.com

8) Hudertwasser, 1991, www.kunsthausewie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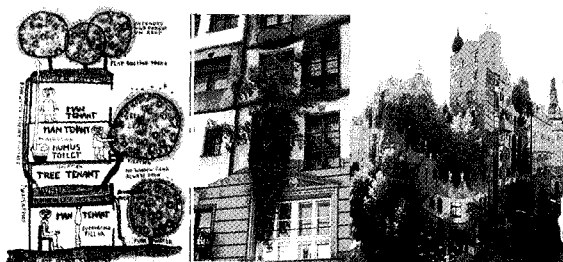
<표 2> 훈데르트바씨의 건축프로젝트(출처://1.www.kunsthauwien.com)

Projects	Architecture	Contents
<p>훈데르트바씨 하우스 집합주택 Housing Complex HndertwasserHaus, Vienna, Austria, 1983-1985</p>		<p>훈데르트바씨의 대표적인 집합주택으로 창문권과 입주목의 개념이 도입된 건축물이다. 이 프로젝트는 남녀노소 입주인, 시공자의 참여가 이루어진 그의 대표적 건축물로 황금빛 돔과 강렬한 원색의 색채가 파사드를 이루고 있으며 진부하고 규범적인 기존의 건축에 반하는 색다를 집을 구현코자 하였다.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집은 현대를 여행하는 모험자인 화가에 의해 계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
<p>성바라라 성당 Church of Saint Barbara, Bärnbach, Austria, 1984-1988</p>		<p>성당을 재설계해달라는 Friedrich Zeck 신부의 초청으로 이뤄진 프로젝트로 그는, 성당 주변까지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을 걸고 착수하게 된다. 성당으로 향하는 12개의 아치형 입구에 세계종교의 상징을 세계 넣음으로서 관용과 화합을 상징하고자 하였다. 지붕에 진 빗방울의 패턴과 파란빛물이 흐르는 외관과 황금빛 돔을 사용하였다. 또한 외관의 타일은 벽에서부터 나와 바닥까지 이어진다. 화려한 색채의 외부와는 달리 실내 제단을 제외한 모든 곳은 철저히 컬러를 배제하였다.</p>
<p>Motorway Restaurant, Bad Fischau, Austria, 1989-1990</p>		<p>고속도로 레스토랑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의뢰된 작품으로 허물고 다시 짓기를 권하는 다른 건축가와 달리 훈데르트바씨는 건물이 지속되길 원하였다. 잔디밭으로 녹화된 옥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의 모양처럼 실제적으로 빗물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p>
<p>쿤스타하우스빈 미술관 Museum, WunstHausWien, Vienna, Austria, 1989-1991</p>		<p>훈데르트바씨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공장을 미술관으로 리노베이션하였다. 그는 이곳을 모든 건축에 나타나는 독재적인 직선에 대한 요새로 표방한다. 파사드의 불규칙한 흑백의 체스판모양은 그리드시스템에 대한 반발이고, 실내의 울퉁불퉁한 바닥을 통해 인간의 자연과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회복을 주장한다. 실내외는 물론 주차장안까지 모든 곳에서 곡선의 사용으로 그의 사상을 실현시킨 예술 작품으로 평가된다.</p>
<p>스피텔라우 난방발전소 District Heating Plant, 'Spittelau' Vienna, Austria, 1988-1992</p>		<p>평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훈데르트바씨의 철학관과 대비되는 건축물로 처음에 제의를 거절하였으나, 시장의 거듭된 설득으로,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난방해결, 비엔나시의 공기오염을 줄이는 다각적인 방법의 약속이행을 전제로 완성되었다. 황금빛 돔과 푸른빛 외관으로 대비되는 강렬한 동화 속 성과 같은 모습으로 지역의 혐오시설에서 탈바꿈하는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p>
<p>집합주택 '목초지' Housing Complex 'In the Meadows', Bad Soden, Germany, 1990-1993</p>		<p>1772년 지어진 지역의 역사적인 온천을 보호하고, 그 주변의 건물을 하나로 통합하여 재창조된 프로젝트로, 서로 다른 지면을 온천원의 잠식 없이, 250개의 콘크리트 기둥을 15m 깊이로 지탱시켰다. 5개의 계단실이 9개층의 아파트로 연결되며, 아파트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녹화된 테라스나 옥상정원이 있으며, 다양한 높이가 건물들에는 요새처럼 보인다.</p>
<p>집합주택 '레인타워아래서' Housing Complex 'Beneath the Rain Tower', Plochingen, Germany, 1990-1994</p>		<p>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건물의 안마당 디자인을 의뢰받은 훈데르트바씨는 창문과 일직선의 파사드를 유기적인 형태로 변형시켰다. 또한 건물 귀퉁이에 탑을 세우고 입구까지 디자인하여 통합된 건물 이미지를 완성한다. 세라믹타일의 기둥과 황금빛 탑, 파사드서부터 테라스를 거쳐 입구까지 외관의 붉은 줄무늬가 이어진다.</p>
<p>헤던하임 어린이탁아시설 Day-care Center, Hedderheim, Frankfurt, Germany, 1988-1995</p>		<p>데이케어센터였던 건물에 유치원의 기능적인 시설보강을 조건으로 훈데르트바씨는 디자인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지역 내 데이케어센터가 발전하는 모델이 되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발전사업으로 시당국은 버려진 공장주변의 시내 복원 사업을 기부하기로 한다.</p>
<p>블루마우 스파 리조트 Roger Hotel & Spa, Blumau, Styria, 1993-1997</p>		<p>훈데르트바씨의 최대의 가장 범위가 넓은 프로젝트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온천을 기획하게 된다. 초기 eye-slit house, forest-courtyard house, rolling-hill hose, shifted-hill hose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후 실내의 수영장 및 레저, 스포츠 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된다.</p>
<p>집합주택 '나선의 숲' Building Complex, 'The Forest Spiral', Darmstadt, Germany, 1997-2000</p>		<p>105세대의 집합주택으로 훈데르트바씨는 해당사이트에 9개층으로 번져나가는 목초지를 통해 산림지대를 만들 아이디어를 낸다. 그의 다른 건축물과 비교하여 나선이 건물 전체적으로 나타나며, 삼원색의 명도와 채도를 떨어뜨렸다. 그는 이를 통하여 수백만 년 전의 침적물이 쌓인 지구의 단층을 표현코자 하였다.</p>
<p>마이시마 소각장 Maishima Incineration Plant(MOP), Osaka, Japan, 1997-2000</p>		<p>오사카에 있는 건축물로 쓰레기소각장의 리노베이션으로 일본 Showa Sekkei 건축팀과 함께한 프로젝트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방문객,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문제와 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위해 협력하는 법을 알기를 원했다.</p>

와 함께 하는 모자이크타일, 그리고 완성된 집을 꾸준히 가꾸는 입주민 등 모두의 합작작품이다. 더불어 그는 그의 사상과 뜻을 함께하는 건축가 Peter Pelikan과 Heinz Springmann와 모델링 전문가 Alfred Schmid, Andreas Bodi 등의 건축가족이라는 일련의 팀을 구성하여 협력으로 건축프로젝트를 수행한다.⁹⁾

일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는 우리가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그들의 있을 자리를 빼앗았으므로, 마찬가지로 나무들을 위하여 건축물에서의 동거를 제안하게 된다. 입주인과 구별되는 입주목(Tree tenant)의 권리를 주장하며 입주목과 함께 생활하는 방식을 구현하게 된다. <그림 14>

그의 건물에선 특히 세라믹타일로 된 기둥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외부의 나무를 연결해주는 또 다른 형태의 나무이다.



<그림 14> 훈데르트바셔하우스의 입주목(入住木)
(Hundertwasser-Haus and Tree tenants)

이렇듯 훈데르트바셔는 인간+자연=행복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공존의 삶을 실현시킨다. 기존 건물을 파괴하고 신축하는 방법보다는 리노베이션을 통해 오래된 지역의 시간이 묻어있는 건물을 되도록 유지하고자하였다.

그의 프로젝트는 주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훈데르트바셔는 이를 적극 활용한다. 프로젝트를 의뢰받을 때마다 해당 건물의 사용자를 고려하는 기능을 보장하고, 치료된 건축물을 통해 지역 주민의 긍정적인 역할 증대를 꾀하게 된다. 즉 제3의 피부를 통해 제4의 피부인 사회환경의 변화까지 이르게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어 범지구적인 환경보호로까지 이어지며 제5의 피부인 지구,

창조의 자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사는 현재 이 공간이 파라다이스이고 단지 인간만이 이를 파괴한다고 보았으며, 그의 예술활동은 이러한 파괴에서 벗어나 낙원 그자체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4. 결론

예술은 항상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자인 동시에 목격자라 할 수 있다. 양차대전과 물질문명시대를 지낸 우리의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서, 프리덴슈라히 훈데르트바셔(Friedensreich Hundertwasser)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예술 세계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오스트리아 작가로서 조명되어지고 있다.

화가로서 출발한 그는 대담하고 강렬한 색채로 한때 악평을 받기도 하며 가우디(Antoni Gaudi)와 비교되기도 했지만 그의 혁신적이고 주목할 만한 건축 작품과 그만의 독특한 철학으로 환경과 공존을 요하는 오늘날 폭넓게 재조명되어지고 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반유대인으로 태어난 그는 전쟁의 잔혹한 참상을 자연의 품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배경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세계 각지의 여행을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존중에 대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아르누보(Art nouveau)와 가우디(Antoni Gaudi), 빈분리파(Wien Secession)와 클림트(Gustav Klimt)라는 문화적 배경은 그의 유기적인 형태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훈데르트바셔는 그만의 재해석을 통하여 그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그의 건축적 특성은 첫째, 모든 색의 근원이 되는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과, 검정과 하양의 대비, 빛나는 금색 여섯 가지 담대한 컬러의 조합을 사용한다. 이러한 반짝이는 황금빛 돔과 원색의 감각적이고도 풍부한 색채감은 우리를 둘러싼 제3의 피부가 되며 딱딱하고 획일적인 건물을 치료하여 유연하게 숨 쉬게 한다. 또한 이는 지역의 혐오시설까지 동화속의 성으로 탈바꿈 시키고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게 만든다.

둘째 그의 그림이 그대로 재현되는 건축물은 유기적인 곡선의 형태와 반복적인 생명력을 지닌 유기적인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곡선은 거대한 나선으로 이루어진 나선의 한 부분으로, 땅의 곡선과 빗방울이 떨어져 흘러내려 그의 건축물에 녹아 흐르게 된다. 이렇듯 땅과 하늘이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되는 매개체인 제3의 피부인 그의 건축물엔 이웃과 층의 구분과 경계 없이 단절 없이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훈데르트바셔의 이러한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평가되며,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삶의 방

9) Peter Pelikan : 과학기술대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1972년부터 비엔나시의 도시계획부에서 일하다가 1980년부터 훈데르트바셔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로서 건축부분에 조력한다.

Heinz M. Springmann : 1951년 독생출생의 프리랜서 건축가로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과학기술대에서 수학하였다. 프로젝트 중 타운계획, 현대건축물 및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는 부분을 담당하였다.

Alfred Schmid : 1950년 비엔나 출신으로 비엔나 과학기술대에서 건축을 전공학 1975년부터 모델링 일을 하다 1980년부터 훈데르트바셔의 협력자로 일한다.

Andreas Bodi : 1963년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비엔나 과학기술대에서 측지학을 전공하였다. 1984년부터 모델 만드는 작업을 시작으로 1986년부터 훈데르트바셔와 일하게 된다.

식 오늘날 인간과 건축의 공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1. Wieland Schmied, Hundertwasser: 1928-2000; Personality, Life, Work, TASCHEN, 2005
2. Pierre Restany, Hundertwasser(Basic Art), TASCHEN, 2001
3. Pierre Restany, The power of art, Hundertwasser-The painter -king with the five skins, TASCHEN, 2003
4. Harry Rand, Hundertwasser, TASCHEN, 2003
5. Joram Harel, Hundertwasser: Kusthauswein, TASCHEN, 1999
6. Aurora Culto Friedensreich Hundertwasser, Te Neues, 2003
7. Friedensreich Hundertwasser, Philip Mattson... etc, Hundertwasser Architecture: For a More Human Architecture in Harmony with Nature, TASCHEN, 1997
8. 조환아, 훈데르트바서의 예술세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8
9. 정보영, Hundertwasser의 작품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1998
10. 유연숙, 현대사회에서 갖는 훈데르트바서 건축의 의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996
11. 추진, 생태학적 디자인(Ecological Design)을 기반으로 한 근미래형친환경주택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2004
12. <http://www.das-hundertwasser-haus.at>
13. <http://www.hundertwasser.com>
14. <http://www1.kunsthawien.com>
15. <http://www.wikipedia.org>.
16. <http://www.naver.com>
17. Hundertwasser_ St, Barbara church. CD

[논문접수 : 2011. 10. 31]

[1차 심사 : 2011. 11. 16]

[게재 확정 : 2011. 12. 09]